



민주화운동이 숨쉬는 길화로
이돈명 2

수 구 냉전 논리로 무장한 보수인사들이 마침내 목청을 높인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비상시국선언이라고 쓴 띠를 두른 그들의 얼굴을 눈여겨보자. 5공화국 때 언론을 통폐합해서 탄압한 인물, 군사정권의 고위관료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서 민주시민들에게 드리는 이돈명의 당부가 굳건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오늘의 사태를 예감한 듯 심각하게 묻는다. 반민주세력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70년대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밑바탕

3·1민주구국선언 사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YH무역 사건, 김재규 사건…….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돈명은 꼼꼼하게 따져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민주화세력이 온몸을 던져 투쟁한 발자취야말로 반민주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우재, 황한식, 장상환, 김세균, 신인령이 참여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을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하나같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할 참인데, 마침 박정희가 죽었고 서울의 봄이 왔다. 수많은 시국사건 중에서 이 사건은 전두환이 마감을 드러내기 전이어서 전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당한 현실을 뜯어고치려던 젊은이들이 한 일이란 소외된 농민, 노동자, 여성들의 권익을 되찾아주는 교육사업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교육기관인 아카데미를 용공조직으로 몰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과 회갑 자축연을 열다.(1982년)

아갔고, 반공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모진 고문을 당한 한명숙의 증언을 들어보자.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뼈 마디마디는 부어 있고, 온몸에 피가 맺히고 멍이 들어……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었다.”

이돈명은 유신의 본령인 박정희를 제거한 김재규의 거사를 애국자의 행동으로 여긴다. 물론 민중이 일어나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으면 더욱 좋았을 터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 했다. 결국 유신의 2인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죽일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는 판단한다. 나아가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이돈명은 정치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다름을 밝히기를 바란다.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나? 라는 물음을 던진 그는 미국 CIA가 조종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전두환 정권이 퍼뜨린 소문일 뿐이라고, 법률적으로 보면 정권탈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이돈명은 10·26 거사가 유신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로

가는 돌파구였음을, '나는 아무 누구의 염려 없이 아주 유쾌하고 또 명예스럽고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그 자부와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즐겁게 갑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10·26 민주회복혁명,



▲ 천주교 신자가 되다. 세종로 성당에서 세례명 '토머스 모어'로 다시 태어나다. (1974년)
▼ 이돈명 변호사에게 감옥살이의 비밀을 안겨주었던 이부영의 후원회에서 손을 맞잡다.(오른쪽이 이돈명)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임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라는 김재규의 유언을 통해 확신한다.

감옥살이를 하다

시금털털한 막걸리나 투박한 질화로를 닮은 변호사 이돈명은 나이 65살에 감옥살이를 한다. 1986년 5월 인천에서 벌어진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 사건으로 수배된 이부영은 김정남의 도움으로 고영구 변호사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헌데 어머니는 80이 넘는 고령이지, 부인은 위경련으로 고생하지, 그곳에서 자신이 잡히기라도 했다가는 고 변호사의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다.

하는 수 없이 이부영은 만약에 잡히더라도 다른 데 있었다고 입을 맞출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고, 그때 김정남이 떠올린 사람이 이돈명이었다. 설마 고령의 변호사를 잡아가랴 하고 마음 툭 놓은 김정남이 '선생님 댁에 있었던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묻기가 무섭게 이돈명은 버릇처럼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부영이 잡히자, 이돈명은 고영구 변호사 대신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말았다.

"남영동 분실에서 취조를 받는데, 법률가인 내가 거짓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참 딱했어. 그래서 오래된 일이고 늙어서 그런지 기억에 없지만 이부영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거다는 식으로 얼버무렸고. 그러자 그들은 '이부영이 이곳에 있는데 만나게 해드릴까요?' 하고 묻더라. 그러라고 했더니 이부영을 데려왔어. 이부영이 나를 보고, '선생님 그때 이리저 않았습니까, 제가 선생님 집에 가서 이르고저리고……' 하길래 '아 그런 것 같네, 자네 말이 맞네.' 그렇게 순 거짓말로 맞장구를 쳤지. 그런데 그놈들도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당시 나를 잡고 싶었으나 핑계가 없어 못

잡아 가두다가 옳다구나 싶은 기회가 왔는데 그냥 놔줄 리 없었지. 내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으니까 조사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날 저녁 구속되었고.”

가짜 징역을 살게 된 이돈명은 무척 괴로웠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가시가 가슴에 박힌 듯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답답함을 참지 못 한 그는 면회 온 김수환 추기경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훌륭하다.’는 말씀뿐이었다. 윤공희 대주교를 만나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끝내 명울로 남았다.

김정남은 세월이 흘렀건만 이돈명을 감옥으로 보낸 죄를 고통스레 고백한다.

“이 선생은 그 옥고로 인권변호사로서의 성망은 더 높아졌는지 모르나, 옥중에서 병을 얻었다. 연세 탓도 있겠지만 그 뒤 잦은 병치레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죄송스러움과 가슴 조마조마함을 어쩔 수 없다. 한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전후사정을 알게 된 사모님과 그 가족들은 내가 얼마나 밍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인가. 나는 아직까지도 그 가족들에게 나의 잘못을 사죄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빌지 못 했다. 선생께서는 최근에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고, 또 가벼운 수전증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그때마다 나는 괜히 오금이 저린다.”

민주주의를 위한 떡

학생이나 노동자들이 구속되면 그 가족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현대 구속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이들이라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다. 아들이 다니는 대학이 일류대학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자식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가을걷이를 끝내고 부랴부랴 올라왔다. 그네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변호사님 우리 애가 잘못을 벌고 풀려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해 달라.’고 사정사정했다. 하지만 이돈명은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부모들 말마따나 감옥에 있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을 안 하겠다고 용서를 빌 리 만무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면회를 하라고 일러줄 뿐이었다. 현대 희한한 것은 자식을 세 번만 만나면 그 부모들이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무턱대고 용서를 구걸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어머니, 제가 대학에 들어간 뜻을 이루자면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려면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평생 징역 사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좋은 세상은 올 거라고’ 자식들이 설득하면 부모들은 백이면 백 다

자식들 편으로 돌아섰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죽을죄를 지은 듯이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이 오히려 자식이 뜻을 굽히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변호사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다. 이돈명은 지금도 이들을 ‘한국 민주주의 뿌리’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오래 전에 먹은 백설기 떡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느 날 시골에서 어떤 노인이 아들 변호를 한다니까 고마움을 전하려고 설기 떡을 해왔다. 그 양반은 변호사에게 수입료라는 것을 주는지조차 까맣게 모르는 촌로였다. 그 늙은이가 쌀을 빻아서 만든 떡을 머리에 이고 지고 그 먼 곳에서 서울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물어 물어 찾아왔다. 이돈명은 사무실에서 “보라구, 세상에서 제일 귀한 떡이 아닌가.”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동료들과 그 떡을 맛나게 먹었다. 그 시골 노인이 변호사를 대접하려고 정성껏 만든 그 간곡한 마음이 바로 민주주의의 뿌리였다. 아들의 맑은 정성을 이해하고 감동하고 결국 아버지가 깨우치고 나중에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돈명은

시국사건을 맡으면서 그 같은 일을 순하게 겪었다.

세상을 보는 눈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을 법률가 이돈명은 인정한다. 사람살이에서 벌어지는 어긋나는 행위들을 다스리는 것이 법이라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변론을 통해 국민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야말로 이돈명이 아는 변호사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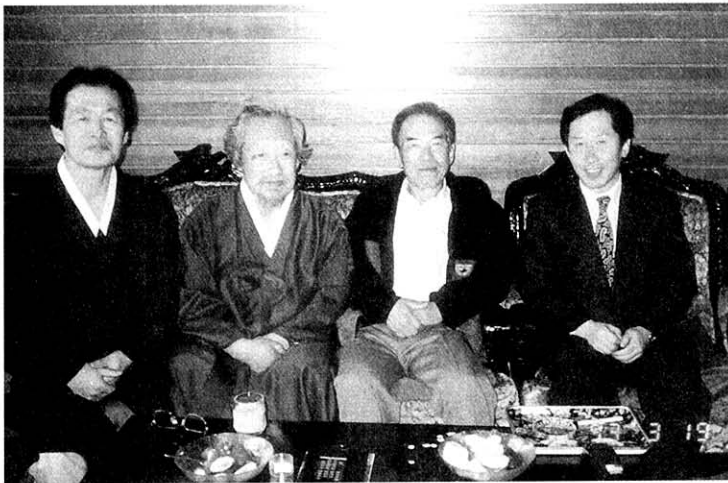
법률가 이돈명에게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짝을 맺어준다. 그리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늙고 물러나고 죽고 또 자손이 살아가고 …… 이것이 인간 사회다. 인간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부닥치고 대립하고 때로는 함께 일하고 공동생산물을 분배하고 그러다 또 다툰다. 이러한 행위가 무수히 일어나는 게 사람의 삶이다.”

사람살이에는 ‘길’이 있고, 이돈명에게 그 길은 곧

‘법’이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삶이 길이 라는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그리는 올바른 사회로 여긴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이 충돌하기 마련인데, 이때 법이 나서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그것이 법이 있는 목적이다. 여기서도 이돈명은 박정희를 떠올리기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유신은 그게 아니었어. 박정희는 자신이 목적하는 권력욕을 위해 법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 법을 짓밟은 박정희는 공동체를 허물어뜨린 역사의 범죄자일 뿐이야. 게다가 악법을 입법기관을 이



문익환, 김근태와 함께(왼쪽에서 세번째가 이돈명 변호사)

용해 만든 건 비극이지.”

이돈명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본다. 후대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새 생각을 가지고 현 것을 고치고 사회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나가리라 믿는다. 통일만 해도 언젠가는 되리라 확신한다. 한민족인 남북 민중은 원수처럼 지낼 아무런 까닭이 없다. 그리고 북을 압박하지 말고 한민족임을 명심하고 어느 한쪽이 침략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새 세대가 커가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그는 바란다.

“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망령든 생각인가 영똥한 생각인가, 묻고 또 묻는다. 즉 나의 질문이 바로 고뇌하는 지점이다. 우리 겨레가 오늘날처럼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런가? 늘 고민한다.”

이돈명은 살만한 세상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글 쓸 수 있기를 첫 손으로 꼽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 일의 성과를 자기가 뜻한 바대로, 즉 인간답게 먹고 살만하게 나눌 수 있기를 꿈꾼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변호사 이돈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불만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을 없애는데 그는 늘 관심을 기울인다.

현실이 답답하고 불만스럽지만 이돈명은 머지않아 잘 풀려나가리라는, 잘 살리라는 꿈을 잃지 않는다. 세상을 오래 산 그는 즐겁게 명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거듭 당부한다.

“힘들더라도 옆을 보며 살아야 돼. 사는 게 답답하면…… 옆을 봐도 그러면 같이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 나쁜 짓을 하면 틀렸다고 가르쳐주고 좋은 일은 서로 배우고 그래야 사람을 사귀는 폭이 넓어진다. 그래야 나와 너의 삶이 즐겁고 행복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데는 민주화운동이 참 좋아!”

이 돈 명

- 1922년 전남 나주군 문평면(지금은 다시면)에서 출생
- 1939년 일제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 조선금융조합서기 시험 합격
- 1940년 함평군 나산면 금융조합 서기로 부임. 박귀순과 결혼
-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 1954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부임
- 1960년 서울 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 1963년 변호사 개업
- 1975년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변론
-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 변론
- 1977년 청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변론
- 1978년 동일방직 및 부활절 예배방해 사건 변론
- 1979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으로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변론
- 1980년 134인 지식인 선언에 참여하여 변호사 업무 중지 당함
- 1981년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 변론
- 1982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오송회 사건 변론
-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변론
- 1985년 민변 고문으로 활동.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 변론
- 1986년 이부영을 도와준 혐의 받고 구속(8개월 수감 생활)
-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6월항쟁 참여
- 1988 ~ 1992년 조선대학교 총장
- 1995 ~ 1996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 1998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 2001 ~ 2003년 민화협 상임이사장으로 활동
- 2004년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공동대표로 활동



윤 동 수

1960년생. 1990년 사상문제운동 겨울호에 '새벽길' 발표.
2003년 평전 '윤상원' 발간.
2004년 단편 '바람 속의 거미집' 문학과 경제 여름호에 발표